

# “함께 모여 악기로 소리 내니 참 행복합니다”

15일 창단 연주회 여는  
빛가람직장인오케스트라  
즐거운 연습 현장

미래창조과학부 직원 최은호(52) 과장은 지난 5월 나주 혁신도시로 내려왔다. 광주전파관리소에 새롭게 동지를 트는 그에게는 몇개월 전부터 작은 즐거움이 생겼다.

언젠가는 꼭 악기를 배우고 싶었던 건 그의 오랜 로망이었다. 지난해 말 무작정 바이올린부터 구입한 그는 1월부터 서울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나주로 내려 온 후에는 교습을 멈췄었다. 어느날, 신문에 난 직장인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기사를 보고 “이거다” 싶었다.

“제2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데 초보라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참 즐거워요.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소리를 내는 게 참 행복합니다.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경험을 갖는 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열혈 단원’ 중 한 명인 최과장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지난 8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맞은편 한 교회에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 ‘나는 열여섯’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나주빛가람직장인 오케스트라(이하 빛가람오케스트라)의 연습 현장이다. 단원들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열리는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었다.

빛가람오케스트라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의 ‘2015 생활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나주시에서 거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당초 현악기 위주로 앙상블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펫 등 관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트럼펫, 클라리넷 등 관악기까지 규모가 확장됐다.

현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40여명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연금보험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나주시청 직원들을 포함해 지역 주



창단 공연을 앞둔 빛가람직장인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난 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연습에 한창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공〉

## 혁신도시 입주기관직장인 등 단원 40명 매주 한차례 연습·전문가 강습도 병행 ‘사운드 오브 뮤직’ ‘아베마리아’ 등 연주

민들로 구성돼 있다. 단원들 가운데 절반은 난생 처음 악기를 잡아본 이들로 쟁쟁한 연주자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이후 성(첼로), 앙신애(비올라), 김정아(바이올린), 주민혁(클라리넷) 등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들과 김정태(트럼펫·전남대 강사), 김혜민(플루트) 등이 강사로 참여중이다.

또 빛가람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한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 유건우씨가 총괄 디렉터를 맡아 지휘를 담당한다. 독일 쾰른 음대, 불가리아 소피아 음악원, 캐나다 몬트리올 콩코디아 음대 등에서 수학한 유씨는 광주 네오빌모니 오케스트라 단장을 역임했다.

오케스트라 운영에 가장 힘든 건 들쭉날

쭉한 출석률이다. 여기에 메르스 여파로 당초 기획보다 단원 모집이 늦어지면서 연습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

“예전에 프로 연주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적은 있는데 직장인들과 함께 하려니 참 힘들습니다(웃음) 무엇보다 출석이 고르지 않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장인들의 업무량이 정말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야근도 잦고 한달씩 장기 출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와서 연습하며 행복해하고 즐기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무료로 공간을 내어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당에서 정규 연습을 해왔으며 실력이 조금 뒤쳐지

거나 배우는 데 열심인 단원들을 위해서는 화요일에도 강습을 진행했다.

“대학교 때 3~4년간 바이올린을 배워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나주에서 번번한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다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니 즐거워요. 어찌 풀 연습을 하는데 멜로디가 귀에 한 번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박영희씨는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기분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와 플루트 앙상블 곡을 들려주며 소프라노 박경숙씨와 함께 가차니의 ‘아베마리아’ 등을 선사한다. 또 합동 공연을 하는 나주 이화유스오케스트라와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등도 연주한다. 문의 010-3114-57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진으로 보는 우리 주변의 문화재



이암 작 ‘운주사 원형다층석탑’(보물 798호)



윤태홍 작 ‘남원 서천리 당산 석상승’(중요민속문화재 20호)

### 국립광주박물관 2월까지 기획 특집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2016년 2월 28일까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기획전 특집전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 애호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문화재 가운데 장승, 석탑, 장과 문살 및 석불을 소재로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의 품도에 맞게 발전한 석탑, 석불, 장승 및 장과 문살에 담긴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 문화에 깃든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절경 속 자리잡은 화순 운주사 원형다층석탑(보물 798호)이나 우두커니 서있는 남원 서천리 당산 석상승(중요민속문화재 20호) 등이 전시된다.

또한 사진전과 더불어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의재 허백련’을 2016년 2월 2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62-570-7032.

／김영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여성단체협, 손자녀 돌보미 사업 대상자 모집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진수)가 맞벌이 가정과 조손 가정의 손자녀 양육 서비스인 ‘손자녀 돌보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으로써 부부 합산 소득 일정 부분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돌보는 세대,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

는 70세 이하 조부모 가운데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신청서(다음 카페 광주여성, 광주시청, 구청 홈페이지) 등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다. 문의 062-363-9401. 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석천 임억령 선생 삶과 문학 학술적 조명

### 한국언어문화회 11일 해남서 제2회 한국언어문학산책

한국언어문화회(회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사진)는 (재)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과 공동으로 석천 임억령 선생의 삶과 문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제2회 한국언어

문학산책’을 개최한다.

오는 11일 오후 2시 해남문화회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김은수(광주대), 박종우(고려대), 권혁명(한성대), 최한선(전



석천 임억령(1496~1568)은 해남이 낳은 조선 중기의 이름난 시인으로 개성적인 문

학세계를 열었다. 그는 시를 단순히 읊풍 농월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생활의 실상을 드러내는 예술로 인식했으며, 특히 하층민의 처지를 다루는 기풍을 가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부승지, 병조참지, 강원도 관찰사, 담양부사 등을 역임했다. 문집으로 ‘석천집(石川集)’ 등이 있다. 문의 010-3906-10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b>7층 상가건물 매매</b>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p><b>(7층) 건물 (사우나 건물)</b></p> <p>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p> <p>☆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p> <p>(보 1억5천, 용 7억)</p> <p><b>매가 16억</b></p>	<p><b>신축 상가원룸 매매</b>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p><b>(4층) 신축원룸</b></p> <p>1층 (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p> <p><b>4면 올 대리석 시공</b> 신축 원룸 / 내부 개끗 / 풀옵션</p> <p>(보 4천만, 월 500만, 용 1억2천만)</p> <p><b>매가 6억 8천만</b></p>	<p><b>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b>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p> <p>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 (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p> <p>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역 (용4천) (보5백,월 42만) → 매가 7천5백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역 (용5천) (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p> <p>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역 (용2천) (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p> <p>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을수리 (용5천) (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p> <p>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 (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p> <p>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 (용4천) → 매가 1억5천만</p> <p>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p> <p>⑨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2)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월520만) → 매가 6억8천만</p> <p>⑩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월1,020만) → 매가 16억</p>	<p><b>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b></p> <p>1. 북구 오룡동 (토 500평,건 900평) ※ 1층 (상가) 2층~7층(오피스텔 룸 56개) 8층 (41평,주택및사무실) 상상전자 정문 앞, 공단및교육시설 단지 감정가 35억 → <b>최저가 19억8천만</b></p> <p>2. 남구 주월동 (토 206평,건 64.5평) ※ 남구정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감정가 16억8천 → <b>최저가 11억8천만</b></p> <p>3. 북구 두암동 (토 44평,건 166평) ※ 두암초등학교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1층(상가)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5천 → <b>최저가 2억5천만</b></p> <p>4. 서구 마곡동 (토 342평,건 84평) (주유소) ※ 광주아울렛 뒷편, 투자적합 감정가 9억9천 → <b>최저가 6억9천</b></p> <p>5. 북구 중흥동 (토 84평,건 385평) (의료시설) ※ 광주역 남동쪽 부근 도로점, 한방병원 시설완비 감정가 8억3천 → <b>최저가 5억8천만</b></p> <p>※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p>	<p><b>경매교육</b></p> <p><b>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b></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p> <p>(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	---	--	--	---

010-6834-4800

010-6832-9700

010-7384-7800 / 010-6670-9800